

화단 및 분화용 노루귀 재배기술



Propagation and Using for Bedding and Potted
Plant of *Hepatica asiatica*

바람꽃, 복수초와 함께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자생화 중의 하나를 대라면 단연 노루귀이다. 꽃 모양도 예쁘지만 꽃대에 난 작은 은색 털들이 햇볕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면 앙증맞을 정도로 아름답다.

노루귀(*Hepatica asiatica* Nakai)는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aceae)로 속명인 헤파티카(*Hepatica*)는 라틴어 Hepaticus의 여성형으로 잎의 열편이 간장과 비슷하다는 뜻과 그리스어의 hepar(간장)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고 새싹이 돌아 날 때에 털이 많이 난 잎의 모양이 노루귀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노루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노루귀는 전국적으로 자생하고 있으며 자생지에 따라 백색, 분홍색, 연분홍색, 보라색, 연보라색, 붉은색 등 화색이 다양하며 겹꽃인 개체들도 종종 보인다.



송 정 섭

농업연구원, 이학박사
(031-290-6159,
songjs@rda.go.kr)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 노루귀 자생 광경(04. 2. 29, 외나로도)

1. 생리 생태 및 용도

숲속에서 자라는 다년생 속근초로서 뿌리줄기는 비스듬히 자라며 마디에서 잔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 초장은 10cm내외이며 잎은 모두 뿌리에서 돋고 가장자리가 3개로 갈라지고 끝이 뾰족한 심장형이다. 중앙 열편은 삼각형이며 양쪽 열편과 더불어 끝이 뾰족하고 이른봄에 잎이 나올 때는 말려서 나온다. 꽃은 3월 중순~5월 상순에 아직 잎이 나오기 전에 개화되는데, 지름이 1.5cm정도로서 백색, 연분홍색, 남자주색과 붉은 색 등으로 피고 꽃대는 길이 6~12cm로서 은색 털이 있으며 끝에서 1개의 꽃이 위를 향해 핀다. 꽃잎은 없고 꽃받침 잎이 꽃잎 같으며 6~8매이고 수술과 암술만 많으며 황색이고 자방에 털이 있다. 수과는 많으며 퍼진 털이 있고 밑에 총포가 있다.

노루귀는 전형적인 산지식물로서 추위나 음지에는 강한 편이지만 더위에 매우. 유사종인 새끼노루귀(*Hepatica insularis* Nakai)는 제주도 자생으로 개체가 노루귀나 섬노루귀에 비해 작고 꽃과 잎이 같이 나온다.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섬노루귀(*Hepatica maxima* Nakai)는 개체가 다른 것에 비해 크며 잎이 먼저 나오고 잎 한가운데에서 꽃이 나오는 것이 다르다. 노루귀는 정원의 낙엽수 아래 지피용으로 활용되는 것이 보통이며, 일부 취미가들을 대상으로 분화 또는 분경용 소재로 이용한다. 화분에 심을 때에는 적은 분이 좋은 데 직경이 10cm 크기 정도면 적당하다. 꽃과 잎이 아름답고 아담하여 테라리움 같은 소품용으로 이용된다. 노루귀는 약용식물로서 한방에서는 진통, 충독, 장치료 등에 이용되기도 하는데, 유독식물이라 함부로 먹어서는 안된다.

2. 재배기술

가. 파 종

개화 2개월 후인 5~6월경에 성숙된 종자를 채종하여 묘상에 직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채종 후 모래에 섞어 노천매장 해두거나 저온저장 해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여도 된다. 종

자는 저온저장고(4℃)에서 휴면타파를 시킨 후 배수성, 통기성, 보수성이 좋은 유기질이 많은 토양이 좋은데 플러그 육묘 전용상토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복토는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게 한다. 물 주기는 저면관수 방법이 종자의 노출방지와 입고병 방제 등에 효과적이다.

나. 육묘 및 정식

묘판에 먼저 묘를 기른 후 본엽이 4~5매가 나오면 그때 옮겨 심는다. 실생 파종 후 3~5년에 개화주로 육성된다. 근삽은 발근이 30~50일 정도 소요되나 이른봄에 삼목하면 당년에 개화주로 키울 수 있다. 분주는 잎이 지고 난 가을에 2~3년마다 3~4개의 눈을 붙여서 나눈다. 이른 봄 재배시에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을 택하여 재배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광도에 따라 개화상태가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히 개방된 노지나 절개지 등은 부적합하고 40%정도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조경용으로는 낙엽수 아래에 심되 하루에 햇볕이 4시간 정도는 드는 곳이 좋다. 꽃이 지고 나면 반그늘 정도가 좋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서늘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토양은 부식질이 많고 배수가 양호하며 pH 5.1~5.3 정도로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며 온도는 겨울철에 -5~5℃, 여름철 18~24℃, 봄·가을에는 10~15℃정도 되는 곳이 알맞다. 물은 생장기인 4~6월까지 2~3일에 1회씩 관수하며 개화가 끝난 이후에는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휴면이 시작된 후 여름가뭄이 지속되면 고사될 위험이 발생하므로 인공관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루귀는 반음지성 식물로서 꽃이 지고 잎이 나오면 30~40%정도 햇볕 가림을 해주어야 정상적인 생장을 한다.

다. 병해충 방제

병해충은 뿌리혹선충 피해가 심하므로 건전한 상토를 선택해야 하고, 상토소독 후에도 주기적으로 살균제를 살포해야 하며, 해충은 아주 심하지 않으나 초파리 애벌레 피해가 가끔 지체부에 나타나므로 주기적으로 살충제를 살포한다. 